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2014년 1월 24일(금) 17:00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원전수출진흥과 채규남 과장(044-203-5330), 조영제 사무관(044-203-5331)

산업부 장관, UAE를 방문하여 에너지·자원협력활동 전개

- 설 명절 맞아 UAE원전 건설현장과 아크부대도 격려 방문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1.15일부터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 인도, 스위스 방문 수행에 이어, 1.23일(목)~24일(금) 간 UAE를 방문하여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한-UAE 에너지·자원협력 외교활동을 전개함

□ 1.23일(목) 윤 장관은 칼둔 아부다비행정청 장관을 만나 UAE원전의 성공적 건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면서,

○ '17년도부터 순차 준공되는 UAE원전 4기의 운영지원을 위해 UAE측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경험인력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함

○ 아울러, 우리 정부의 원전비리 근절 노력과 안전 최우선의 원전 건설 및 운영 의지를 강조함

□ 스와이디 아부다비석유공사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는 한-UAE 석유가스 협력 MOU에서 합의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,

○ 작년 9월부터 200만 배럴씩 3회*에 걸쳐 600만배럴이 입고되어 원유 공동비축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중인데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함

* 한-UAE 공동비축현황: 1차 200만배럴('13.9월), 2차 200만배럴('13.12월), 3차 200만배럴('14.1월), 총 600만배럴 입고

□ 수하일 UAE에너지부 장관 면담시에도 원유 공동비축, 아부다비 3개 광구 개발 등 양국이 주요 에너지 협력 파트너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

□ 1.24일(금)에는 UAE 바라카(Barakah) 원전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설 명절을 앞둔 직원들을 격려하였음

○ 50도를 넘나드는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현지 공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,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임무를 더욱 철저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함

○ UAE원전은 당초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건설이 진행중이며, 1호기는 '12년 본공사가 시작된 이후 작년말부터 주요기기 설치가 시작되어, 금년에는 원자로 등 핵심 기기가 설치될 예정임

○ 현재 원전건설 현장에는 1,600여명의 한국 직원들이 근무중이며, UAE측으로부터 매월 공사 진척정도에 따라 2~3천억원의 공사비를 수령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

□ 이어서 윤 장관은 아부다비에서 UAE군 특수전 부대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중인 아크부대를 방문하여, 우리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함

○ '11.1월부터 파견되기 시작한 아크부대는 작년말 국회에서 파병기간 연장(1년) 동의안이 통과되어 '14.1월초부터 제 7진 150명이 현장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음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